

미 부채한도협상 노이즈가 두렵다면

2023/ 05/ 16

Strategist

곽병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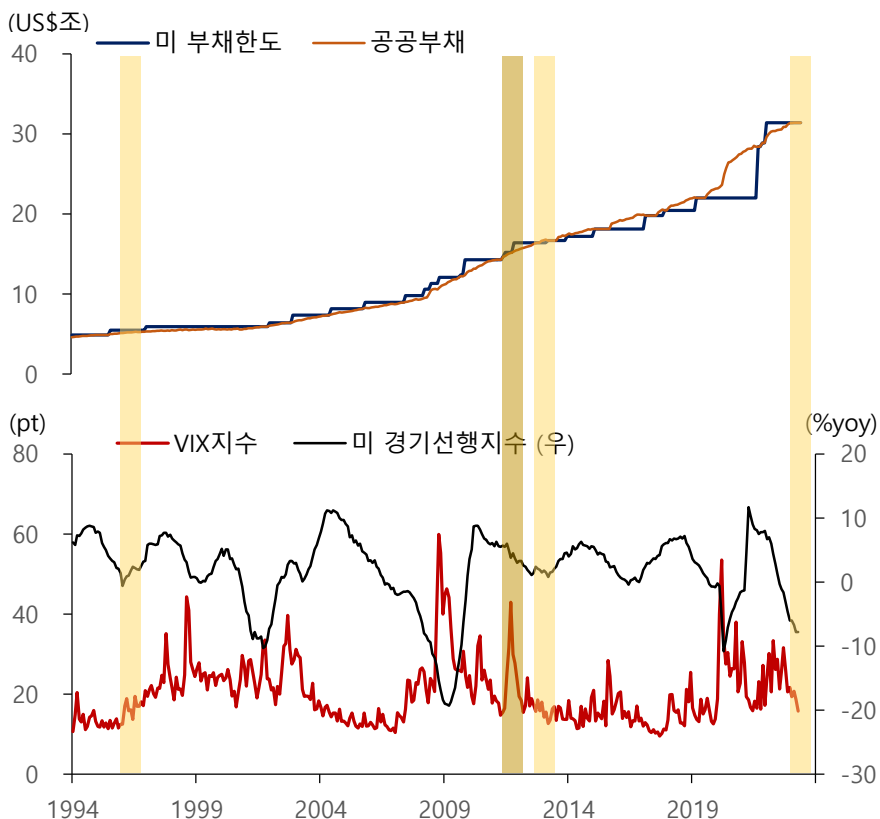
(2009-7148)

brkwak@leading.co.kr

■ 미 부채한도협상 노이즈 대응 전략

미국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한인 'X-Date(6 월 1 일)'가 다가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간헐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16 일 바이든-의회 간의 협상재개가 예고되었는데, 과거사례 상 단기 연장 및 7 월 중 합의 등 결렬보다는 지연 후 타협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함. 노이즈 국면(95, 11, 13 년)은 선행지수 하강기와 중첩되었으나, 11 년을 제외하면 변동성(VIX) 지수의 이상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금번도 유사한 흐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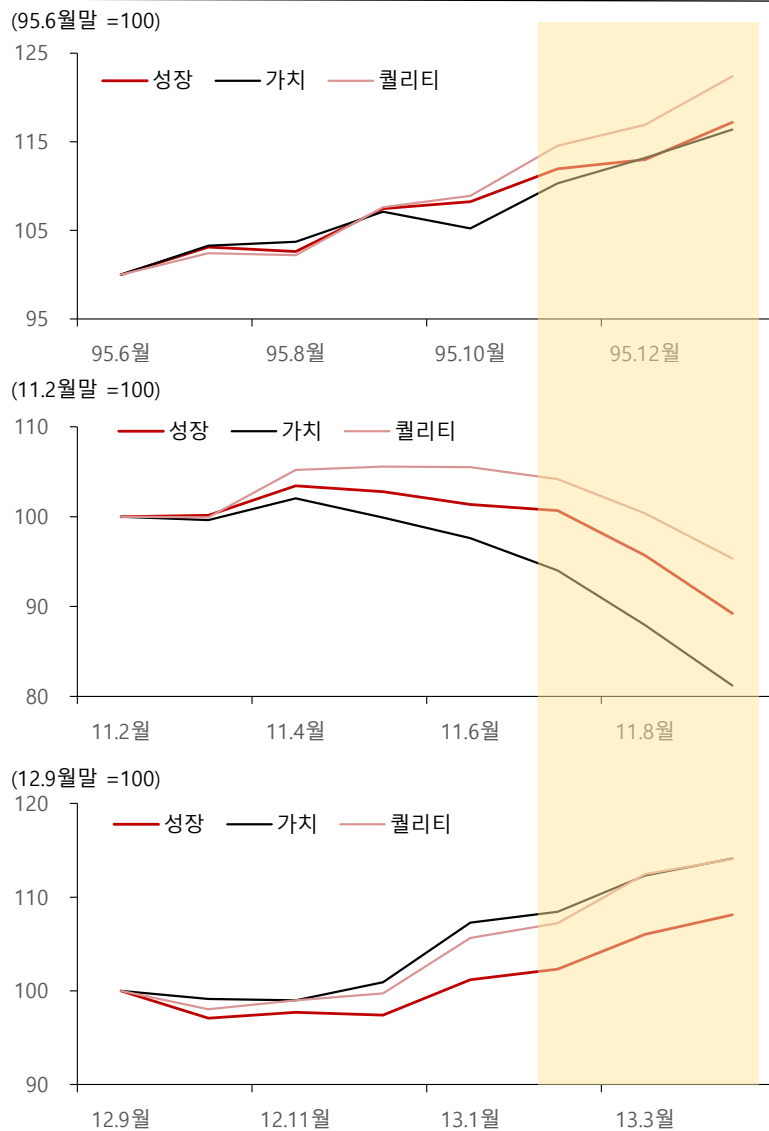
<그림 1> 미 부채한도협상의 노이즈 사례



다만 주목할 점은 부채한도협상 노이즈 국면 전후의 S&P500 기준의 스타일 지수(style index) 반응임. 3 차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퀄리티 지수(Quality Index)의 상대적 강세현상이 발견되었고, 빈도 면에서 성장주 지수(Growth Index)가 가치주 지수(Value Index) 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노이즈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시 재무적 관점의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며, 노이즈 해소 이후를 대비할 때도 퀄리티 종목에 대한 선호도는 높았음을 반영한 것임. 또한 동 기간 중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시장금리 하향세가 나타난 점도 성장주 선전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함

<그림 2> 노이즈 영역 진입 시 스타일지수 반응



그렇다면 미 부채한도협상의 노이즈 확대 시 '퀄리티(Quality)' 스타일의 시장 주도력이 강화되는 특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퀄리티 요인(Quality Factor)은 재무 안정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므로, 외부변수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잉여 자원을 확보했다는 즉, '안전마진'이 뛰어난 기업이 위기에 강한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퀄리티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MSCI Quality Index'의 스코어링 방식(ROE, 부채비율, EPS 변동성)으로 국내 주요 종목(추정대상 기업)의 2023 년과 2024 년 예상실적을 각각 적용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집계되었으므로 참고 바람.

<그림 3> Quality Score 우수 종목군



자료: Dataguide, 리딩투자증권

■ 결 론

▷ 미 부채한도 협상 기본 시나리오

: 단기 연장 및 7 월 중 합의 등 결렬보다는 지연 후 타협 가능성 우세

▷ 주목할 점은 부채한도협상 노이즈 국면 전후의 S&P500 기준의 스타일 지수 반응임

: 3 차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퀄리티 지수(Quality Index)의 강세현상 발견

▷ 퀄리티 요인 선호는 '안전마진'이 뛰어난 기업이 위기에도 강할 것이라는 기대 반영

▷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위해서는 Quality Score 우수 종목군 권함

: 23 년 및 24 년 예상실적 반영 (그림 3 참조):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